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성공적 피날레

열흘간 27만 명 방문...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비전 알리고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나주 대표 콘텐츠 발전 가능성 보여줘 농산물 먹거리 부스 연일 문전성시...바가지요금 근절 등 호평

나주시가 첫 통합축제로 개최한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 전당을 방불케 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연일 선보이면서 열흘 간 누적 방문객 27만명을 기록하며 나주축제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다.

나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주무대에서 나주시립합창단·국악단 폐막 공연과 불꽃쇼를 끝으로 통합축제를 끝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보낸 10일'이라는 부제로 마한, 고려, 조선, 근대로 이어지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문화도시인 나주만의 볼거리, 즐길 (체험)거리, 먹거리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선보였다.

특히 나주가 시대별로 가장 변형했던 장면을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로 창작해 축제 기간 하루도 쉬지 않고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꼭꼭 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다.

54척 조운선이 영산강을 힘차게 가르며 개막 퍼포먼스와 3차례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는 이번 축제 최대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특산물을 가득 싣고 만산의 기쁨을 누리며 강을 가로질러 도착하는 모습을 재현한 조운선 퍼포먼스는 서남권 물류의 중심지였던 영산포의 부활, 살아있는 강이자 바다로 나주의 변용을 이끈 영산강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왕건과 버들남자의 첫 만남을 그린 창작뮤지컬 '왕건과 장화왕후'를 비롯해 '마한소도제', 미디어아트 '영산강 아리랑', '천연염색패션쇼', '왕건-견훤 원한 꽃놀이',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전통 춤·연희 '나주목관부부', 근대무용 '나주시내 판스홀', '나주학생항일운동 현대무용' 등 각종 무대공연은 향후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전야제 K-POP댄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합창단 K-판, 전북도립국악원 '진경', 국립남도국악원, 오페라 갈라(나주여 승리하라), 체코세베라 책 청소년 합창단, 서울패밀리 목비(영산강 찬가), 가수 변진섭 등 각종 초청·축하 공연도 관람객들에게 연일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개막일 밤남면 주민들의 마한 행진 퍼레이드를 비롯해 매일 낮 시간대 주무대에 오른 나주시민에 술단, 빛가람 어린이 바이올린·오카리나 연주단, 시민오케스트라 등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풍성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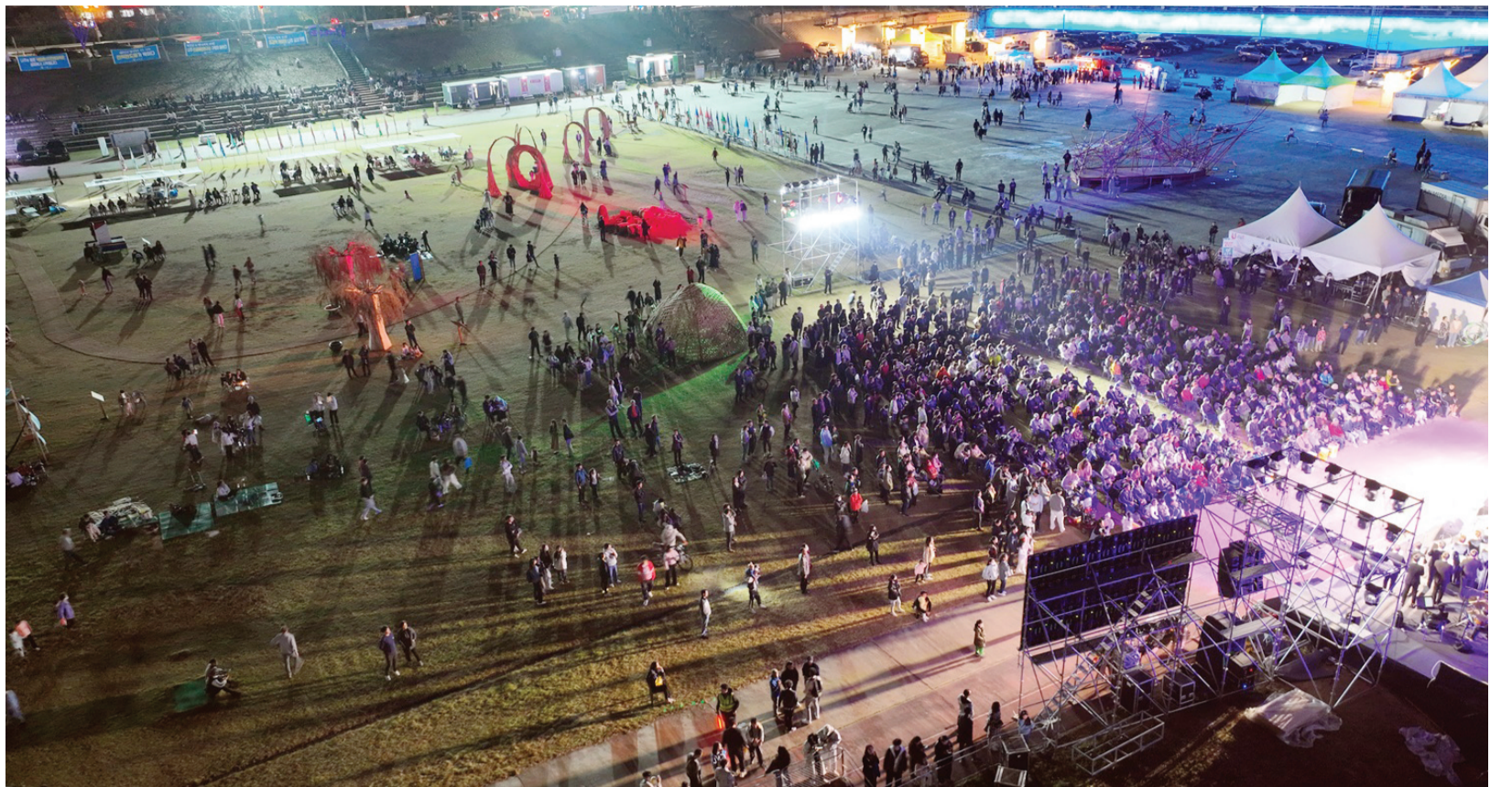
연일 수준 높고 진정성 있는 공연과 더불어 벽을 없앤 축제 주무대에 대한 관람객의 호응도 좋았다.

축제 무대는 기존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 매일 저녁 황홀한 영산강 낙조 풍경, 낭만적인 가을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천차만별의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별적, 산발적으로 각기 진행됐던 군소 축제·행사를 하나로 묶어 시도한 나주의 첫 '통합축제'였다. 이는 통합축제는 마한문화제, 천년나주목업성문화축제, 나주농업페스타,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 영산강전국요리경연대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개최했다.

이 중 나주농업페스타의 경우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됐던 기존 모습과는 달리 통합축제와 연계해 농축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 농업 생산자와 관광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농업축제로 발돋움했다.

나주 대표 특산물인 신고배를 배 터지게 맛볼 수 있는 배 시식 코너와 나주시축산단체협의회 축산



사상 첫 통합축제로 개최된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 현장. (나주시 제공)

물 시식 부스, 나주 농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경문화체험존은 연일 줄 지어선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역 외식업체 11곳이 입점한 '영산강 카페테리아' 먹거리 부스는 철저한 위생 관리, 바가지요금 근절, 맛깔난 음식과 더불어 일회용 접시, 수저가 아닌 식당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축제 식문화를 만들어냈다.

열흘간 나주농업페스타존, 영산강카페테리아 부스

누적 매출은 4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통합축제를 통해 선보인 수준 높은 공연은 나주의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이자 시민의 문화 향유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영산강을 배경으로 열흘간 펼쳐진 나주의 첫 통합축제를 찾아주시는 전국외의 관광객분들과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마량항 낚시대회, 전국 강태공 1800명 몰렸다

감성돔·갑오징어 낚시대회 성료 어촌 경제 해양레저관광산업 전환 "콘텐츠 보강해 가족 축제 열 것"

강진 마량항에서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전국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박람회'에 1800명 인파가 몰렸다.

강진군은 지난 27~28일 열린 '혼다마린캡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와 '제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처음 치른 행사에도 전국에서 온 강태공 1800여 명이 마량항 일원을 가득 채웠다.

대회 기간 마량항 인근 식당과 상가 등은 3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강진군 측은 내다봤다.

대회 시상금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 효과도 높였다.

대회장에서는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와 혼다가 협업해 '해양박람회'와 '혼다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양박람회에서는 친환경 해양기자재와 모터보트, 낚시용품 등을 전시했다.

행사 첫날 열린 '혼다마린캡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에는 전국 낚시인 150명이 참가했다.

이날에는 김은수(강진)씨가 2마리 합산 83.5cm의 감성돔을 잡아 10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둘째 날 열린 '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에는 300명이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동안 경합을 벌인 결과 서양규(광주)씨가 갑오징어 4.26kg을 낚아 상금 1000만원을 차지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60대 사업에 '바다낚시 어선 유지'를 포함하고 수산·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내년 대회에는 참가인원을 늘려 더 큰 규모로 준비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보강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마량항에서 열린 전국 낚시대회 참가자들이 출항을 위해 낚시배에 승선하고 있다. 이틀간 열린 대회장에는 참가자 4500명을 포함해 모두 1800명이 몰렸다. (강진군 제공)

함평 국향대전, 즐길거리 있어 더 '향긋'

새우잡기·농심줄놀이·인형극...4일 '청학동 딸' 김다현 공연

오는 5일까지 열리는 함평군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국향대전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일원에서 펼쳐진다.

우선 습지공원 무료체험 공간에서는 '농심줄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뼘뚝 농심줄을 감고 풀며 소원을 비는 전통놀이이다.

축제장에서는 이 밖에도 징거미새우 잡기, 손수건 만들기, 국향 마걸리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전에는 함평예술연합회가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오후에는 인형극과 트로트공연, 비눗방울 공

연, 팝페라 공연, 시낭송회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오는 4일에는 '최진석과 함께하는 웅산 재즈밴드', '청학동 딸' 김다현 등의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5일에는 국화꽃 아리아 공연과 국화꽃 사랑 이야기, '트로트의 민족' 허나라 공연 등이 이어진다.

국향대전은 유료(어른 7000원)로 운영되지만,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축제가 종료되는 날까지 여러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놀이 '농심줄놀이'를 즐기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정월 대보름 불붙은 짚단 던지며 안녕 빌었던 액막이 풍속

화순적벽 낙화놀이, 화순천 꽃강길서 재현

4일 낙화봉 점화·불단 던지기 행사

화순의 전통문화였던 적벽 낙화놀이가 화순천 꽃강길에서 재현된다.

화순군은 오는 4일 화순을 화순천 꽃강길 일원에서 '화순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리는 불꽃 아래 다시 떠오르는 화순적벽 낙화놀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낙화놀이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화순청년회의소(JCI)와 (주)에이싱크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오후 5시30분 낙화봉 점화가 이뤄지고 뒤이어 불단 던지기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부대행사로 낙화봉에 소원씨 뜨기, 농악대,

만장기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돋운다.

조선시대 때부터 명승 제112호 화순적벽에서 펼쳐졌던 낙화놀이는 정월대보름이나 사월 초파일이면 적벽에서 불을 붙인 짚단을 떨어뜨리며 주민들의 안녕을 빌었던 액막이 세시풍속이다.

그러다가 지난 1970년대 동북수원지가 만들어지고 적벽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명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통의 맥이 끊겼던 화순적벽 낙화놀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불꽃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낙화놀이를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최대 500만원

군, 12월11일까지 접수

장흥군이 인구 전입에 보탬을 준 기관·단체 등에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을 준다.

장흥군은 오는 12월1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흥군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흥군에 3명 이상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3명 이상 전입에 도움을 준 기관·단체는 실적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받는다.

개인은 5만원부터 장려금을 준다.

장려금은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인과 기관·단체의 중복 지급은 할 수 없다. 신청 서류는 장흥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10%로 상향

지류·카드 월 70만원 한도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일부터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했다.

10월까지 지류상품권은 10%, 카드(모바일)상품권은 7%의 특별할인율을 각각 적용했으나, 이달부터는 지류와 카드(모바일) 모두 10% 할인을 적용하게 됐다.

이번 10% 특별할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지류는 20만 원, 카드(모바일)는 50만 원이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사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

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앱인 '착(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와 환전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것으로, 특별할인율 상향과 구매한도액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유통 비용이 많이 드는 지류보다는 구매한도가 크고 사용이 편리한 카드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